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43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経済新聞

※ 대상 기간 : 2025.05.29~2025.06.04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6
■ 중국		
-	중국 북방 최초 신에너지차 해상운송 전용선 개통	7
-	중국 5개 부처, 2025년 신에너지차 농촌 보급 활동 전개	7
-	광둥성, 심해 잠수정 등 신형 해양 장비 개발 지원	8
-	'양쯔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 로드맵 보고서' 발표	9
-	HSBC 보고서: 중국, 여전히 글로벌 기업 교역 확대의 주요 시장	9
-	중국, 노동자 고품질 충분 취업 촉진 정책 강화	10
-	중국 여러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개선 위한 정책 패키지 시행	11
-	중국 공업정보화부,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행동 계획 발표	12
-	'전국 과학기술 혁신 100강 지수 보고서' 발표: 동부 혁신 활발, 민간기업 역할 두드러져	12
-	'베이징 문화-기술 융합 발전 보고서(2023-2024)' 발간	13
■ 일본		
-	일본, 버스전용차로 활용 BRT 및 자율주행 확대	14
-	NTT서일본과 오사카 공립대학, '히가시' 지역 활성화 위한 연계 협력	14
-	일본 정부, '여성판 골태방침 2025' 원안 제시, 지방 여성 창업 및 관리직 등용 촉진	15

- 일본가스협회, 장기 비전 발표-비화석연료 도입 목표 50~90%로 하향 조정 16
- 야마나시현·일본항공 등,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회 수용성 향상 위해 연계 16
- 일본 정부, 고령자용 소규모 공유주택 전국 확대...저렴한 임대료로 낙후지역 생활 지원 17
- 일본, 해상풍력발전 설치 가능 해역 EEZ까지 확대...개정법 성립 18
- 야마나시현, 지산지소 '그린 수소' 협력 확대...미래상 제시 19
- 일본 총무성, 원격 데이터센터 통합 운영 실증 지원 19
- 일본, TPP 축으로 자유무역권 재구축...미·중과 차별화 모색 20

■ 아세안

- 아세안, 2030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 규모 녹색산업 수익 창출 전망 21
- 아세안+, 2025년 AI 투자 대폭 확대 전망 21
- 아세안, 경제통합 전략계획 발표 22

■ 캄보디아

- 캄보디아와 베트남, 교통망 개선으로 관광 협력 강화 23

■ 라오스

- 라오스와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서 협력 강화 23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 개발에 UAE 제벨알리 모델 도입 24
- 말레이시아 항공과 구글, AI 솔루션 협력 확대 25

■ 필리핀

- 필리핀, 한국과 양식업·농업 협력 강화 25

■ 베트남

- 베트남, 글로벌 무역 긴장 속 제조업 부문 도전과제 직면 26

■ 태국

- 태국, 미국과 무역협상 앞두고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해제 추진 27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북방 지역 최초의 신에너지 자동차 해상 운송을 전담하는 '녹안통'호가 옌타이항에서 역사적인 첫 항해를 개시, 매 항차 132대의 차량 운송 능력과 더불어 첨단 스마트 소방 시스템을 완비하여 안전한 운송 체계를 확보
- ✓ 중국의 5개 주요 부처가 농촌 지역에서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엄선된 124개 차량 모델을 공개하고, 충전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 및 스마트카 기술 적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통합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
- ✓ 광둥성은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전자정보 관련 기업들의 해양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심해 잠수정 등 첨단 신형 해양 장비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 기술 혁신을 선도
- ✓ 중국 인민대학교는 '양쯔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해당 경제벨트의 산업 구조, 과학기술 혁신, 인재 유치 등 6개 핵심 차원을 심층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특히 하류 도시군의 선도적 우위를 면밀히 분석
- ✓ HSBC 보고서는 중국 시장이 여전히 전 세계 기업들의 교역 확대 및 생산 거점 확충을 위한 핵심 시장임을 강조하고, 특히 아시아 기업들의 높은 중국 투자 의향을 언급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거대한 내수 시장 규모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지목
- ✓ 중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고품질 충분 취업 기회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등 신규 고용 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능 향상 교육 확대와 노동자 권익 보호 노력을 병행

- ✓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주택 재고의 효과적인 소화와 신규 주택 공급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시행 중이며, 구매 제한 완화, 구매 상품권 지급, 양질의 '좋은 집'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국가 차원의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행동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2028년까지 전국 공공 컴퓨팅 자원의 표준화된 상호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설정,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 ✓ 최근 발표된 중국 '전국 과학기술 혁신 100강 지수 보고서'는 동부 연안 지역의 활발한 혁신 활동과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화웨이 등 주요 기업의 상위권 진입 및 대학·연구기관의 혁신 성과를 심층 분석
- ✓ 베이징시는 '문화-기술 융합 발전 보고서'를 발간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디지털화·지능화가 문화 상품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밝히고, 뉴미디어를 통한 문화 전승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지원 강화를 강조

○ 일본

- ✓ 일본 간토 지방과 야마나시현에서는 기존 버스 전용차로를 적극 활용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스템을 확대 중이며, 도쿄·가나가와현의 총연장은 전국 최상위 수준임. 이바라키현 히타치 BRT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 운행을 개시
- ✓ NTT서일본과 오사카 공립대학은 교바시·모리노미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 협력을 체결하고,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기업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도시 개발 가속화 및 DX 핵심 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

- ✓ 일본 정부는 '여성판 골태방침 2025' 원안을 통해 지방 거주 여성의 창업 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내 여성 관리직 등용을 적극 촉진하며, 전국의 남녀 공동참여 센터를 지원 거점으로 삼고 여성 대상 디지털 기술 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침
- ✓ 일본가스협회는 2050년 도시가스 내 비화석연료 사용 목표를 50~90%로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합성 메탄·바이오가스 활용과 함께 CCS·CCU 등 혁신 신기술을 병행하여 실현 가능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
- ✓ 야마나시현과 일본항공 등 5개 주요 기관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발표하고, 무조종사 항공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조사와 실제 실증 비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최적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 ✓ 일본 정부는 고령자용 소규모 공유주택의 전국적 확대를 적극 추진하며, '지방창생 교부금'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 시설의 현대적 공유주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낙후지역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
- ✓ 일본은 해상풍력발전 시설 설치 가능 해역을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정법을 성립시켜 향후 부체식 해상풍력발전 중심의 사업을 예상함. 정부 지정 공모 구역 내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의 후 사업 허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 야마나시현은 지산지소 방식의 '그린 수소' 관련 협력을 적극 확대하여 현내 그린 수소 공급처를 15곳으로 늘리고, 핵심 기술인 '야마나시 모델 P2G 시스템' 6곳 추가 가동 예정이며, 국가의 가격차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 규모 확대를 추진
- ✓ 일본 총무성은 원격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실증 지원을 검토하며, 첨단 광통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도시 지역의 전력 수급 불안정 해소 및 재해 시 위험 분산을 도모

- ✓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중심으로 국제 자유무역권 재구축을 적극 추진하며, 미국·중국과 차별화된 독자적 무역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아세안·EU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TPP 외연 확대 및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표명

○ 아세안

- ✓ 아세안은 2030년까지 역내 녹색 산업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연간 약 3,000억 달러의 추가 수익과 총 1조 5,000억 달러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전망하며, 이를 위해 '아세안 통합 전력망' 구축 및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등을 적극 추진
- ✓ 레노버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기업들은 2025년 AI 투자를 전년 대비 약 2.7배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운영 효율성 최적화와 고객 응대 서비스 향상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고 싱가포르가 역내 AI 기술 성숙도 최고 수준임. 특히 의료·통신·정부 부문 성장 기대
- ✓ 아세안은 회원국 간 역내 무역 표준의 실질적인 조화와 금융 시스템 통합 강화를 위한 5개년 경제통합 전략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2045년까지 아세안을 세계 4위 규모의 강력한 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지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지역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을 강조

○ 캄보디아

- ✓ 캄보디아와 베트남 양국은 상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공식 합의하고, 양국 연결 육상·수상·항공 등 교통망 개선과 주요 도시 간 직항 노선 확대를 추진하며, 공동 관광 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양국 경제 성장 촉진을 기대

○ 라오스

- ✓ 라오스와 필리핀 양국 정상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양자 회담을 통해 수교 70주년을 맞아 기존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재확인 하고, 특히 농업·관광·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상호 의장국 수임 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는 UAE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유무역지대 도입을 적극 계획하며, 현대식 항만 시설과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사라왁 주를 역내 핵심 무역 허브로 전환 목표함. '사라왁 항만 종합계획'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망
- ✓ 말레이시아항공과 구글은 AI 및 빅데이터 기반 혁신 마케팅 전략과 포괄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여, AI 솔루션의 적극적인 통합을 통해 고객 여행 경험을 한층 향상시키고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국가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

○ 필리핀

- ✓ 필리핀 정부는 한국과 협력하여 총 1,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양식업 개발 프로젝트 및 지역사회 기반 농업 발전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KOIC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국가 전체 농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

○ 베트남

- ✓ 베트남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비용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

로벌 무역 긴장과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대외 경제 요인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함.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 육성 및 경제 개혁 가속화로 이에 적극 대응

○ 태국

- ✓ 태국 정부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의 자국 해제를 주요 목표로 저작권법 개정 등 새로운 IP 집행 체계를 공식 승인함. 이를 통해 시청각 분야 창작자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만연한 불법복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향후 미·태 통상 관계 개선을 기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북방 최초 신에너지차 해상운송 전용선 개통 - 5월 31일 저녁, 신에너지 자동차 운송이 가능한 로로선 '녹안통'호가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첫 항해를 시작하며 중국 북방 최초의 신에너지 자동차 해상 운송 전용 노선 개통을 알림. 이 선박은 매 항차마다 132대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운송할 수 있으며, 온도 탐지기, 고압 미세 물안개 시스템, 방화 담요, 차체 하부 소방 물총 등 입체적인 스마트 소방 시스템을 갖추어 운송 안전을 확보함 - 옌타이-다렌 여객 로로선 항로는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 도시군을 연결하는 '황금 수로'로 불리며, 연간 약 400만 명의 여객과 약 120만 대의 차량을 운송하는 중요한 교통로임. 이번 전용 노선 개통은 오랫동안 산둥성과 랴오닝성 간 항로에서 신에너지 차량이 선박에 탑승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운송 시대를 예고함 - 신에너지 자동차 해상 운송 전용선 개통은 신에너지 자동차 소유주와 관련 기업에게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도착'하는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이는 중국 북방 지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과 물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 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됨
	○ 중국 5개 부처, 2025년 신에너지차 농촌 보급 활동 전개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가 6월 3일 '2025년 신에너지 자동차 농촌 보급 활동' 개시를 통지하며 124개 차종이 포함된 활동 모델 목록을 발표함. 이번 활동은 농촌 시장에 적합하고 평판이 좋으며 품질이 신뢰할 수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을 선정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률이 낮고 시장 잠재력이 큰 대표적인 현급 도시에서 여러 차례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이번 신에너지 자동차 농촌 보급 활동은 현금 지역 충전 및 교체 시설 보장 시범 사업, 스마트 커넥티드카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시범 사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우수한 자원이 농촌 지역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차량-전력망 상호작용 기술의 농촌 지역 적용을 촉진하여 농촌의 녹색 발전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임 - 통지문은 각종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판매, 금융, 충전 및 교체, 애프터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함. 또한, '중고차 교체 지원', '현금 지역 충전 및 교체 시설 보장' 등 정책 도구와 결합하여 '차량 구매 할인+에너지 사용 지원+서비스 보장' 통합 판촉 방안을 마련하고, 구매부터 사용, 유지보수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강조함
	○ 광둥성, 심해 잠수정 등 신형 해양 장비 개발 지원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광둥성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조례'는 광둥성 최초의 해양경제 발전 관련 지방 법규임. 중국에서 가장 긴 대륙 해안선을 보유한 광둥성은 2024년 해양 생산 총액 2조 225억 위안을 기록하며 30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강력한 해양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 조례는 전자 정보 기업의 해양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의 해양 분야 융합 응용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명시함. 또한, 해양 공학 장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심해 잠수정, 무인 선박, 수중 로봇 등 신형 해양 장비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해양 기술 혁신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힘 - 해양 생태 공간 및 해양 개발 이용 공간 통제 강화, 해안선 보호 수준 및 이용 효율 향상, 근해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이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유도, 심해 개발 공간 확장, 무인도 보호 및 개발 이용 규범화 등을 조례에 명시함. 광둥성은 향후 연해 경제벨트 종합 발전 계획을 수정하고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행동 방안을 수립하여 전국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 창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양쯔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 로드맵 보고서' 발표 - 중국 인민대학교가 편찬한 '양쯔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 로드맵 보고서'가 6월 3일 쓰촨성 이빈시에서 발표됨. 이 보고서는 양쯔강 경제벨트의 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자금 보장, 국토 공간, 인재 친화, 생태 안보 등 6개 주요 차원에서 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보고서에 따르면 양쯔강 경제벨트는 6개 차원에서 발전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재 친화 지수가 가장 높아 각 도시의 인재 유치 노력을 반영함. 국토 공간, 생태 안보, 산업 발전 지수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하류 도시군이 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자금 흐름 등 다수 영역에서 뚜렷한 선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과학기술 혁신 총지수는 2017년 11.6에서 2022년 15.2로 상승하며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자금 흐름 총지수 역시 꾸준히 상승함. 그러나 양쯔강 유역의 생태 안보는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생태계 건강성 부족, 오염 배출과 환경 수용력 불일치, 생태 인프라 투자 부족, 생태 제품 가치 실현 메커니즘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
	○ HSBC 보고서: 중국, 여전히 글로벌 기업 교역 확대의 주요 시장 - HSBC 그룹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기업 무역 전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기업들이 무역 관계를 늘리고 생산 및 제조를 확대하려는 주요 시장인 것으로 나타남. 13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시장 5,700개 이상의 국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4%가 중국과의 무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해 유럽(43%), 미국(39%)을 앞섬 - 생산 제조 측면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선호를 받고 있으며, 응답 기업의 40%가 향후 2년 내 중국에서의 제품 생산을 늘리거나 계획 중이라고 답함. 이는 유럽을 선택한 비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특히 아시아 기업들은 중국과의 무역 확대(54%) 및 중국 내 제조 확대(52%) 의향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HSBC 중국 법인장은 중국이 기술 혁신의 강력한 잠재력과 시장 규모, 산업망 및 공급망 등의 전통적 우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국내외 기업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함. 한편, 중국 본토 기업의 90%가 향후 2년간 국제 사업 성장에 대해 낙관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남아시아와의 무역 확대를 계획하는 등 해외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 노동자 고품질 충분 취업 촉진 정책 강화 -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취업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 안정'을 강조하며 고용 안정 정책 도구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각 지역 및 부처가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임. 선전시 노동취업빌딩의 민간기업 서비스의 달 현장 채용회, 내몽골 후허하오터시 야시장 채용회 등 혁신적인 취업 서비스가 등장하며 공공 취업 서비스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신산업과 새로운 수요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장을 열어주고 있으며, 강화된 기능 향상과 보장 제도는 노동자들의 생활 전망을 넓히고 있음.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성장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고용 형태를 창출하고 있음. 핀둬둬 플랫폼은 1,420만 개의 사업체를 유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하여 5,5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포용적 고용 생태계를 형성함 - 제조업 전환 및 고도화에 따라 기능 집약형 인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둥성은 20개 전략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학연계 기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쓰촨성 뎬양시는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합 조정 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으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능 향상 교육과 함께 노동관계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임
	○ 중국 여러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개선 위한 정책 패키지 시행 - 중국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러 지방 정부가 기존 재고 소화와 신규 공급 최적화 양면에서 정책 조합을 내놓고 있음. 상하이시는 주택 구매 제한 조정, 다자녀 가구 지원, 주택 대출 정책 최적화 등을 담은 정책들을 통해 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칭다오는 박사 10만 위안, 석사 5만 위안의 구매 상품권 지급 등 12개 정책을 시행 중임 - 장쑤성은 주택 교환권 제도와 기존 주택 매입 방식을 통해 재고 소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난징시는 이를 통해 정책성 주택 2천여 채와 상품방 3천여 채를 소화함. 항저우시는 기존 상품 주택을 매입하여 보장성 주택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채택했으며, 칭다오시는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시행하여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좋은 집' 시대를 맞아 항저우시는 주택 품질 향상 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녹색 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칭다오시는 좋은 입지와 편의시설을 갖춘 양질의 부지를 우선 공급하고 '좋은 집' 산업 연맹을 구성함.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시장 안정화를 넘어 주민들이 구매 가능하면서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며, 정부, 기업, 소비자의 공동 노력이 요구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공업정보화부,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행동 계획 발표 -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행동 계획'을 발표하여, 다양한 주체와 아키텍처의 공공 컴퓨팅 자원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한다고 밝힘. 이는 공공 컴퓨팅 자원의 사용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디지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됨 - 행동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표준, 식별자, 규칙 체계를 비교적 완비하고, 새로운 고성능 전송 프로토콜을 보급하며, 국가·지역·산업별 상호연결 플랫폼을 구축할 목표임. 2028년까지는 전국 공공 컴퓨팅 파워의 표준화된 상호연결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지능형 감지, 실시간 발견, 온디맨드 액세스가 가능한 컴퓨팅 파워 인터넷을 점진적으로 형성할 계획임 - 주요 과제로는 컴퓨팅 파워 상호연결 표준화 지침 제정, 통일된 호출 인터페이스 및 통신 프로토콜 사용 촉진,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유연한 이전 및 스케줄링 지원 등이 포함됨. 또한 인공지능, 과학 계산, 스마트 제조, 원격 의료, 비디오 네트워크, 스마트 드라이빙, 클라우드 렌더링, 클라우드 PC, 클라우드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응용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전국 과학기술 혁신 100강 지수 보고서' 발표: 동부 혁신 활발, 민간기업 역할 두드러져 - 디지털 정보 연구기관인 바웨이과기 창신연구원이 '2025년 전국 과학기술 혁신 100강 지수 보고서(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편)'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78개 국가 및 지역의 특허, 학술 논문 등 수십억 건의 과학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혁신 역량, 혁신 가치, 혁신 영향'의 3개 1차 지표, 9개 2차 지표, 20여 개 3차 지표를 통해 1만여 개 혁신 주체를 평가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기업 혁신 부문에서는 화웨이, 국가전력망공사, 텐센트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 기업이 388개(77.6%)로 가장 많았음. 특히 민간기업(260개) 수가 국유기업 및 중앙기업(240개)을 합친 것보다 많아 민간 부문의 혁신 활약이 두드러짐을 시사함. 지난 3년간 500대 기업의 연간 특허 등록 건수는 25만 건 이상을 유지하며 높은 혁신 활동을 보임 - 대학 혁신 50강에서는 동부 지역 대학이 30곳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장쑤성(9곳)과 베이징시(8곳)가 선두를 달림. 연구기관 50강 역시 동부 지역이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특허 이전 및 사업화 부문에서는 베이징 소재 연구기관들이 두각을 나타내 중국과학원 마이크로전자 연구소가 1위를 기록함. 이는 동부 지역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활발한 산학연 협력을 반영함
	○ '베이징 문화-기술 융합 발전 보고서(2023-2024)' 발간 - 베이징시 과학기술연구원과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공동으로 '베이징 문화-기술 융합 발전 보고서(2023-2024)'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베이징의 문화와 기술 융합 발전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주요 문화 산업의 기술 혁신 특징과 추세를 요약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산업은 정보화, 디지털화, 지능화 특징을 보이며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베이징 인터넷 3.0 산업 혁신 발전 업무 방안(2023-2025년)', '베이징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규정 준수 지침(2023년판)' 등 정책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도 역할을 수행함 - 숏폼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등 뉴미디어는 문화 계승 및 전파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젊은층에게는 트렌디한 '귀차오(国潮)' 요소를, 노년층에게는 자원 접근 플랫폼을 제공함. 바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트댄스의 '볼케이노 엔진' 대형 모델 서비스 플랫폼 등이 대표적 사례임. 향후 베이징은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번영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임
일본	○ 일본, 버스전용차로 활용 BRT 및 자율주행 확대 - 일본 간토 및 야마나시현에서 버스 전용 및 우선 차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은 총연장 거리에 서 전국 1, 2위를 차지함. 가와사키시에서는 2023년 3월부터 2량 연결 버스 'KAWASAKI BRT'가 운행을 시작, 출퇴근 시간대 버스 전용차로를 통해 많은 승객을 신속하게 수송하며, 도쿄 마치다시에서도 약 1km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 중임 - 도쿄 도심 도라노몬 힐스와 임해 부도심을 잇는 4개 노선의 '도쿄 BRT'가 2024년 2월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으나, 주로 대중교통 우선 시스템(PTPS)을 활용하고 버스 전용차로는 일부 구간에 한정됨. 도쿄도는 향후 경찰 당국과 협의하여 전용차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쓰시카구에서는 기존 화물 노선을 활용한 차세대 노면전차(LRT) 또는 BRT 도입도 검토 중임 - 이바라키현에서는 폐선된 철도 부지를 활용한 두 개의 BRT 노선이 운영 중이며, 히타치 BRT는 2025년 2월부터 총 8.7km 중 약 6.1km의 버스 전용도로에서 레벨4 자율주행 영업 운행을 시작함. 사이타마현 와코시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버스 전용차선에서 레벨2 자율주행 버스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 및 자율주행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 ○ NTT서일본과 오사카 공립대학, '하가시' 지역 활성화 위한 연계 협력 - NTT서일본과 오사카 공립대학 법인이 5월 30일, 오사카시 교바시·모리노미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약을 체결함. 9월 모리노미야 캠퍼스를 개설하는 오사카 공립대학의 교육·연구 성과와 교바시에 본사를 둔 NTT서일본의 오픈 이노베이션 시설 및 디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털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 개발 및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임 - 교바시·모리노미야 지역은 기타, 미나미에 이어 '히가시'의 거점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곳으로,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신규 서비스 창출, 지역 스타트업 육성 지원, 디지털 전환(DX)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양측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연구 프로젝트 협력, 학생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교류 및 공동 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 이번 협약은 대학의 지식과 기업의 기술력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산학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	○ 일본 정부, '여성판 골태방침 2025' 원안 제시, 지방 여성 창업 및 관리직 등용 촉진 - 일본 정부가 6월 2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남녀 공동참여 회의에서 여성 활약 및 남녀 공동참여 중점 방침인 '여성판 골태방침 2025' 원안을 제시함. 이 방침은 '여성에게 선택받고,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내걸고 지방에서 여성의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관리직 등용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는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남녀 공동참여 센터를 여성 창업 지원 거점으로 지정하고, 경영 노하우 습득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임. 또한 2026년 설치 예정인 독립행정법인 '남녀 공동참여 기구'를 통해 각 지역의 노력을 지원하고, 전국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파견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방침임 - 정부는 여성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위한 3개년 지원책을 담은 인재 육성 계획 원안도 함께 제시함. 중·고등학교 프로그래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교육을 확충하고, 국가 지정 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을 보조하는 '교육훈련급부금' 대상에 인공지능(AI) 등 관련 강좌를 추가하여 여성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일본가스협회, 장기 비전 발표-비화석연료 도입 목표 50~90%로 하향 조정 - 전국 가스회사가 가입한 일본가스협회가 6월 3일, 2050년 도시가스 내 비화석연료 사용 비율 목표를 기존 '거의 100%'에서 '50~90%'로 낮춘 장기 비전을 발표함. 이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CO2)를 회수하여 탈탄소화하는 수단이 용인되기 시작함에 따라, 비화석연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탈탄소를 실현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풀이됨 - 비화석연료로는 CO2와 수소로 인공 메탄을 만드는 '합성 메탄'과 하수 슬러지나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만드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에 사용할 계획이며, 2050년까지 이들 연료로 50~90%, 수소로 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에는 천연가스를 합성 메탄, 바이오가스, 수소로 거의 100% 대체하는 구상이었음 - 천연가스는 CO2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든 후 10~50% 정도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며, 회수한 CO2를 지하에 저장하는 'CCS'나 콘크리트 원료 등으로 이용하는 'CCU' 등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방침임. 우치다 타카시 일본가스협회 회장(도쿄가스 회장)은 “모든 사업자가 '자신의 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전으로 만들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이라고 밝힘
	○ 야마나시현·일본항공 등,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회 수용성 향상 위해 연계 - 야마나시현과 일본항공 등 산학관 5개 기관이 6월 3일,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 계획을 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표함. 미래 파일럿 부족에 대비하여 자율 비행하는 '무조종사 항공기'에 대한 주민 조사를 실시하고, 현 내 실증 비행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이는 차세대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됨 - MS&AD 인터리스크 총괄연구소, 야마나시 대학, 규슈 대학을 포함한 5개 기관은 도쿄에서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역 주민 대상 조사에는 양 대학 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임. 나가사키 코타로 야마나시현 지사는 고령자 이동, 재해 시 대피, 관광지 접근 등 지역 과제 해결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유용하다고 강조하며 주민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함 - 운항 사업자가 될 일본항공의 하마모토 타카시 집행임원은 “파일럿이 필요 없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지방에서의 활약이 기대되지만,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수용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이번 협력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래 교통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임
	○ 일본 정부, 고령자용 소규모 공유주택 전국 확대…저렴한 임대료로 낙후지역 생활 지원 - 일본 정부가 고령자 대상 소규모 공유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방창생 교부금'을 활용하여 정비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특별양호노인홈(특양홈) 및 재활시설을 전환하여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낙후지역에서도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임. 이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세우는 지방창생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임 - 3일 열린 지방창생 유관자 회의에서 '지방창생 2.0 기본구상' 원안이 제시되었으며, 6월 중 확정될 예정임. 이 구상은 “각자가 가진 능력을 희망에 따라 발휘하고 보람을 느끼며 생활할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소규모·지역공생 홈형 CCRC(생애활약마을)’ 보급에 주력하고 있음 - 정부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10건, 10억 엔을 상한으로 지방창생 교부금을 지원하여 시설 정비 및 운영 비용을 보조할 계획임.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역 NPO 법인 등이 운영 주체가 되며, 입주자는 건강한 동안 시설 업무나 지역 공생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업무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됨. 임대료는 연금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함
	○ 일본, 해상풍력발전 설치 가능 해역 EEZ까지 확대·개정법 성립 - 일본에서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이 6월 3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함. 기존에는 영해 내로 제한되었던 설치 해역을 EEZ까지 확대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도입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EEZ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 각국의 경제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으로, 영해 내에서는 수심이 얇은 해저에 고정하는 착상식이 주류였으나 EEZ까지 확대되면 바다에 띄우는 부체식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법은 정부가 자연조건 등이 갖춰진 해역을 공모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는 정부에 실시 계획을 제출한 후 어업 관계자 등 지역 관계자와의 협의회에서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규정함 -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으면 국토교통상과 경제산업상이 허가하는 구조이며, 정부는 2월 각의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40년도 전원 구성 중 풍력발전 비율을 현재 1%에서 4~8%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설정함. 이번 해상풍력발전 설치 가능 해역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야마나시현, 지산지소 '그린 수소' 협력 확대...미래상 제시 - 야마나시현이 재생에너지 유래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 협력처를 확대하며, 현재 현내 수소 공급처는 15곳으로 늘어났고 도레이 등과 공동 개발한 수소 제조 장치 '야마나시 모델 P2G 시스템'은 2025년도 말까지 현 내외 6곳에서 가동될 계획임. 이는 야마나시현이 지산지소형 수소 사업을 주도하며 '돈 버는 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의 일환으로 평가됨 - 산토리 홀딩스의 하쿠슈 증류소 인접 부지에는 연간 최대 2,200톤의 수소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그린 수소 제조 플랜트가 건설 중이며, 야마나시현, 도쿄전력 홀딩스, 도레이가 출자한 야마나시 하이드로젠 컴퍼니(YHC)가 운영하여 생산된 수소를 산토리가 구매, 천연수 살균 열원으로 사용할 예정임. 이는 연간 1만 6,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야마나시현은 국가 가격차 지원 제도 적용을 신청하여 P2G 시스템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린 수소 이용 기업 저변 확대와 지역 탈탄소화에 기여할 방침임. UCC 우에시마 커피 후지 공장은 이미 수소 로스팅 커피 양산을 시작하는 등 환경 부하 저감과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으며, 야마나시현은 P2G 사업의 전국 확산을 통해 YHC의 수익 증대 및 자립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 총무성, 원격 데이터센터 통합 운영 실증 지원 - 일본 총무성이 광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여러 데이터센터를 연결해 통합 운영하는 실증 사업 지원을 검토 중임. 이는 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도시 지역의 전력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해 발생 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와트-비트 연계' 구상의 핵심 요소로 평가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현재 일본 데이터센터의 90%가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성형 AI 등의 보급으로 통신량과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총무성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대체하는 '광전융합' 기술에 주목하며, 이 기술을 통해 저지연 고속 통신 및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져 원격지의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인프라처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발전소와 통신 인프라 통합 정비를 논의하는 유관자 회의에서 관련 방침을 마련하고, 2030년대 실현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위한 통신 기술 실증 지원을 검토할 예정임. 이는 NTT가 개발 중인 차세대 통신 기반 '아이온(IOWN)'과 같은 일본 기업의 강점 기술을 활용하여 통신 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 전력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일본, TPP 축으로 자유무역권 재구축...미·중과 차별화 모색 - 일본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자유무역 체제를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이후 동남아시아와 유럽연합(EU)이 TPP에 관심을 보이면서, 일본은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및 중국과는 차별화된 무역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5월 29일 '아시아의 미래' 행사에서 TPP 확대 의지를 표명하며 아세안(ASEAN)과 EU를 협력 대상으로 언급함. TPP는 관세 철폐,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칙 제정을 주도해왔으며, 일본은 자유무역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TPP 확대를 추진해 옴 - 현재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EU와의 협력이 심화될 경우 거대한 무역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영국은 이미 TPP에 가입했으며, 일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본은 과거 TPP 발효 및 확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 중국 또한 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나,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 유지가 관건임
아세안	○ 아세안, 2030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 규모 녹색산업 수익 창출 전망 - 아세안은 2030년까지 역내 전력망, 탄소시장,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등 녹색 투자 확대와 국경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연간 3,000억 달러의 추가 수익과 1조 5,000억 달러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자프를 압둘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2025에서 이러한 기회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함 - 말레이시아는 녹색 투자 전략을 통해 2024년 약 1,000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아세안 차원에서도 녹색 목표 달성을 위해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녹색가치사슬 플레이북' 등 주요 프레임워크를 추진하며 회원국들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 '아세안 전력망(APG)' 이니셔티브는 18개 국경 간 전력 프로젝트와 60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부지를 포함하며, 2050년까지 역내 GDP에 3조 달러를 추가하고 14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아세안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 A)'은 2030년까지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규모를 2조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동반 성장이 기대됨 ○ 아세안+, 2025년 AI 투자 대폭 확대 전망 - 레노버의 'CIO 플레이북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플러스(ASEAN+)* 국가 기업 리더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 인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아세안	공지능(AI) 투자를 전년 대비 2.7배 늘릴 것으로 예상됨. 이는 아시아태평양 12개국 시장의 IT 및 비즈니스 의사결정자 900여 명을 포함한 총 2,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AI 기술 도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함 - 아세안+ 기업들은 역내 AI 도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3%가 운영 최적화 및 고객 응대 기능을 중심으로 AI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들 기업의 65%가 AI 기반 PC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AI 기술의 업무 환경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싱가포르를 지역 내 AI 성숙도가 가장 높은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기업들은 AI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 대비 약 3.6배의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통신, 정부 부문에서 큰 성장이 예상됨. 레노버는 기업들의 AI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 스타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국은 혁신적이고 수익성 높은 AI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역내 주요 AI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세안, 경제통합 전략계획 발표 - 아세안은 5월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 표준 조화와 금융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하는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역내 무역 확대, 기업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아세안을 2045년까지 세계 네 번째 규모의 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함 - 이번 전략계획은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통합 심화, 에너지 안보 강화, 교통 연결성 개선, 무역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 무역 흐름 변화, 기술 혁신, 기후변화 영향, 인구구조 변화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어, 이를 극복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아세안	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공동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아세안경제공동체이사회가 전략 이행을 담당하고 아세안 사무국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 지속에 따라 아세안의 지역통합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함. 이번 전략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아세안의 경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캄보디아	○ 캄보디아와 베트남, 교통망 개선으로 관광 협력 강화 - 후윗 학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과 응우옌 민 부 주캄보디아 베트남 대사가 5월 27일 만나 양국 간 관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양국 간 국제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상호 방문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조치들이 모색됨. 이는 양국의 관광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양측은 육상, 수상, 항공을 통한 양국 관광지 간 연결 인프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 또한, 베트남 주요 도시에서 캄보디아 관광지까지 직항 정기 노선을 확대하고 새로운 국제 관광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과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 양국은 관광 산업이 경제 성장 촉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베트남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캄보디아의 정치적 안정성과 빠른 경제 발전이 안전한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함
라오스	○ 라오스와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서 협력 강화 - 소네사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5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라오스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담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 양국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국제 포럼에서의 상호 지원을 통해 협력 관계가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강조함. 특히 농업, 관광,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필리핀의 대(對)라오스 투자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투자 확대를 기대함 - 소네사이 총리는 2024년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대한 필리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2026년 필리핀의 의장국 수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라오스 공식 방문을 요청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 의지를 다짐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 개발에 UAE 제벨알리 모델 도입 - 더글라스 우가 엠바스 사라왁 주 부총리가 사라왁에 UAE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FTZ)의 성공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두바이 GDP의 36%를 차지하는 제벨알리처럼 현대식 항만 시설과 자유무역지대를 통합하여 사라왁을 지역 무역 허브로 전환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라왁 정부는 주 항만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라왁 항만 종합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개발전략 2030'과 연계하여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항만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물류 효율성 증대와 국제 교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라왁 항만 종합계획은 사라왁을 글로벌 무역과 물류의 핵심 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점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지역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사라왁 주정부는 항만 인프라와 연결성 강화를 통해 천연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항공과 구글, AI 솔루션 협력 확대 - 말레이시아항공과 구글이 5월 27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 디지털 혁신을 통해 여행의 미래를 재정의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함. 이번 파트너십은 2024년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항공사 운영 전반에 AI 기반 솔루션을 통합하여 여행 경험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기술 혁신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함 - 양측은 구글의 '퍼포먼스 맥스(Performance Max)'를 활용한 AI 기반 성과 마케팅과 AI 강화 검색 도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마타 페어(Matta Fair)에서 선보인 대화형 AI 쇼케이스는 구글의 최신 이미지-비디오 생성 기술 '베오(Veo)'를 활용하여 방문객들의 여행 사진을 동적인 비디오 콘텐츠로 변환하는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함 - 이번 파트너십은 말레이시아항공이 아시아 대표 여행 관문으로 도약하고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캠페인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말레이시아항공은 AI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인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미래지향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말레이시아의 관광 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임
필리핀	○ 필리핀, 한국과 양식업·농업 협력 강화 - 필리핀 정부가 한국과 함께 양식업 개발 및 지역사회 기반 농업 발전을 위한 1,6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약을 통해 진행될 이 다년간 프로젝트는 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리핀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 첫 번째 프로젝트는 1,000만 달러 규모로 기마라스 주의 양식업 개발 역량 강화, 생산성 향상, 가치사슬 개선을 목표로 하며, 두 번째 프로젝트는 600만 달러 규모로 중부 루손 지역 잠발레스에 농업 인큐베이션 센터 설립 및 탈락의 기존 시설 개선을 포함함.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농업 기술 보급과 농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필리핀 농업부는 전국적인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KOICA는 농업 기계화, 스마트 농업, 낙농 개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이미 2,078만 달러를 지원해 온 바 있음. 이번 협력은 필리핀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국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베트남	○ 베트남, 글로벌 무역 긴장 속 제조업 부문 도전과제 직면 - 베트남 제조업은 낮은 노동비용, 발달된 수출 인프라, 전략적 입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첨단기술 기업 및 특화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국가 계획 추진과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이는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 2025년 1분기 베트남 GDP는 6.93% 성장했으나, 2024년 4분기 성장률(7.55%)보다는 낮은 수치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됨. 세계은행은 무역 불확실성과 대외 요인을 반영해 2025년 베트남 GDP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하향 조정하며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 2025년 1분기 산업 부문의 GDP 부가가치 기여도는 전년 동기 대비 7.32% 증가했으며, 가공 및 제조업은 9.28% 성장함. 그러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5년 3월 50.5에서 4월 45.6으로 하락하여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따른 제조업 위축을 반영함. 정부는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개혁 가속화 및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지속할 방침임
태국	○ 태국, 미국과 무역협상 앞두고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해제 추진 - 태국 내각이 5월 27일,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태국을 제외시키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집행 체계를 승인함. 피차이 나립타판 태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수립한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USTR 및 태국 내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집행 체계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에 맞춰 태국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시청각 제작자와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2027년부터 시행될 이 변경안은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국은 2007년부터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왔으며, 이번 집행 체계 도입을 계기로 90일 이내에 미국과 공식 관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이 계획은 지난해 46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에 영향을 미친 지식재산권 집행 미흡 등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목표로 하며, 양국 간 통상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